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랑가라컬리지는 sky train역과 밀접, 주변 대중교통 수단이 잘 되어 있기에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아쉽게도 스타벅스가 시공 중이라 이용하진 못 했지만, 스타벅스, 팀홀튼 기타 매점이나 자판기, 전자레인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고, 이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총 3주에 걸쳐 진행이 되나, 수업진행에 앞서 첫날 반을 배정받게 됩니다. 반은 랑가라컬리지에서 실시하는 듣기평가 결과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듣기평가는 토익듣기평가와 유사한 문제형태로 진행됩니다. 반이 나누어지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크게 English Essentials, Skill Development, Cultural Studies, Global Citizenship 그리고 조를 정하여 각 조마다 주제를 정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는 Presentation 활동으로 실시됩니다. 즉, 다양한 영어회화표현, 스킬 그리고 캐나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부, 봉사활동에 대한 논의 등 시민의식과 관련된 수업내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업방식은, 저희 반의 경우 대부분 파트너를 정하거나 조를 만들어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해주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적지 않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준비는 학교에서 나누어준 바인더와 개인적인 필기구만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필드트립은 Kayaking, Discover Vancouver, Aquarium, Museum, Whistler 등 크게 5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카약킹은 2인이 하나의 카약에 타서 함께 카약킹을 조종하게 됩니다. 하체 쪽이 젖을 확률이 크고 햇빛이 강한 만큼, 피부가 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얇고 긴, 그리고 잘 마르는 복장을 입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여벌옷과 수건은 크게 필요하지 않았으나, 모자와 선크림은 꼭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카약킹 주변에 맛있는 젤라또집이 있는 만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용돈을 챙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iscover Vancouver은 많이 걷는 활동인 만큼, 편안한 복장과 신발을 신고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외에 약 30분 동안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곳이 다운타운인 만큼 무언가를 사거나 사먹기를 원하시면 약간의 용돈을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쿠아리움 활동은 출발은 학교에서 다 함께 하나, 활동 종료 후 귀가는 각자 이루어지기에 바로 홈스테이로 귀가하셔도 되며, 원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쿠아리움은 스탠리파크 쪽에 위치하여 있기에 활동이 끝난 후, 스탠리파크로 이동하시거나 다운타운도 가까운 만큼 다운타운으로 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 활동 역시 출발은 학교에서 함께 하나, 귀가는 각자 이루어지기에 활동종료 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박물관 바로 인근에 키칠라노 해변이 위치해 있는데, 매우 아름다운 만큼 활동 종료 후, 키칠라노 해변을 한 번 쯤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휘슬러 활동은 꼭 외투 하나씩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비가 왔기에 날씨가 더욱 추웠던 만큼 외투를 든든하게 챙기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니 전날 날씨를 미리 확인하신 후 복장을 알맞게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곤돌라를 타고 내려온 후 마을 같은 곳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지니 무언가를 사먹거나, 기념품을 사길 원하시는 분들은 용돈을 따로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첫 주에는 햇빛이 강하고 날이 좀 더운 편이었으나, 둘 째 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했습니다. 그러니 반팔과 반바지와 함께 봄가을용 외투 그리고 긴 바지도 함께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들었던 만큼 밴쿠버는 안전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지인 만큼 외출 시 귀중품 관리나 너무 늦지 않게 귀가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가족구성원 공간과 별도로 분리되어있는 홈스테이 집 지하에 있는 방을 사용했습니다. 지하인 만큼 기온이 낮아, 감기가 걸리지 않게 조심하여야 했지만, 홈스테이 학생들만 따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냉장고, 식탁과 싱크대 등의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만큼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홈스테이 가족구성원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과 딸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홈 맘과 홈 대디는 저를 마주하는 순간, 혹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안부를 물어봐주셨고, 하루일과를 관심 있게 물어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홈스테이는 샤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았으나, 건식인 만큼 샤워실을 사용 후에는 물기를 제거해야 했으며, 세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저녁을 밖에서 드시고 들어가실 경우 미리 홈맘에게 연락을 하여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 생활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으나, 랑가라컬리지와 거리가 많이 멀었던 편이기에 등하교에 있어 불편함을 적지 않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일단 아침식사는 홈맘과 홈대디가 일찍 출근을 하는 만큼 제가 시리얼이나 토스트 등을 따로 챙겨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홈스테이는 거리가 멀었던 만큼 아침식사 역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침을 거를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대부분, 카페테리아에서 홈맘이 싸준 도시락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홈맘이 준비해주신 점심메뉴는 거의 샌드위치였으며, 추가로 과일이나 에너지바 등 간식 을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홈스테이는 점심식사로 샌드위치를 준비해주시는 거 같으나, 혹시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않으신 편이시라면 학교에서 작성하는 홈스테이 양식에 미리 기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음식이 그리울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컵라면이나 컵반 등을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홈스테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거나,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였는데 외식비용이 결코 싼 편은 아닌 만큼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컴퍼스카드 덕분에 교통에 큰 제한 없이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만큼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나, 조금만 적응하면 어렵지 않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오티 때 교통수단 이용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진행해주니 잘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28,900	
보험료	35,430	
사비	1,200,000	유심칩, 쇼핑, 외식 등
합계	2,964,33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출국 전 홈스테이 가족과 미리 연락을 하여 필요한 준비물이나 규칙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홈스테이 가족들 선물을 준비해갔는데, 물론, 필요사항은 아니나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선물을 준비해가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이지만 기후가 다른 만큼 작은 우산과 외투 등을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하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비상약 또한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리,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학교나 홈스테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유심이나 로밍을 해 가시는 것이 이동이나 정보검색을 위해 좀 더 편리하실 거 같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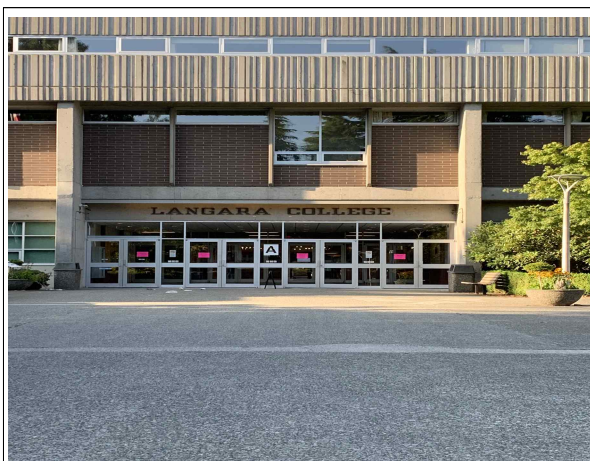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낯설고 걱정되기도 했지만, 점차 적응하고 나니 3주가 너무도 짧게 느껴질 만큼 행복하고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반에는 우리 순천향대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일본에서 온 친구들도 함께 수업을 하였는데 정말 모두 착하고 정이 많아 마지막 헤어질 때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살면서 외국학교를 다니며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고, 외국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대학교 생활 중 가장 뜻깊고 좋았던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그곳에 날씨도 사람들도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홈스테이 엄마께서 여름에 온 걸 행운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름의 밴쿠버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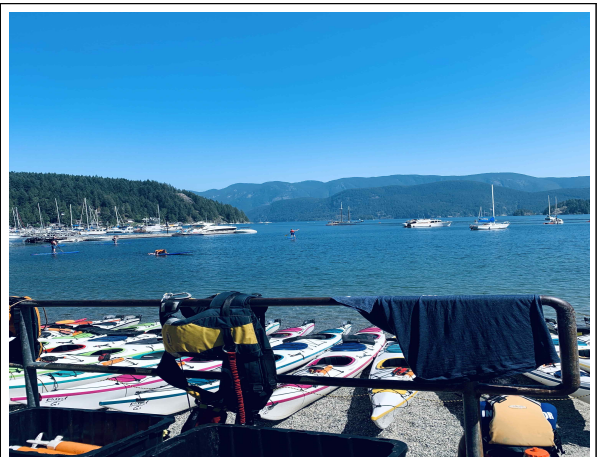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낯선 곳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많이 고민했었지만,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했던 것은 전혀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학교에게 감사하며, 만약 단기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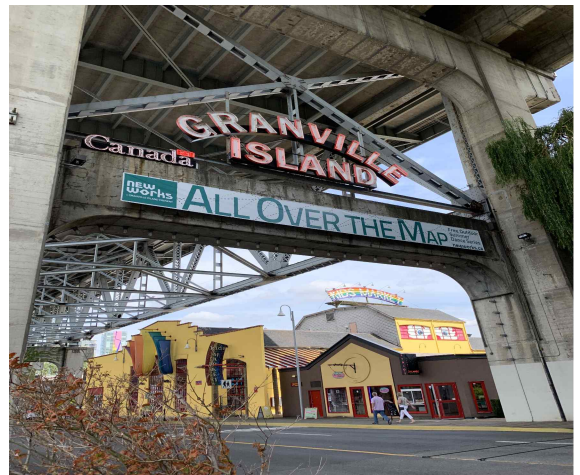
수업 받았던 랑가라컬리지 건물



카약킹



캐나다 플레이스



그랜빌아일랜드



잉글리시 베이



키칠라노 해변